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8, No. 6 December, 2012

ISSN 2287-1780(Print)
ISSN 2287-1772(Online)
http://dx.doi.org/10.9724/kfcs.2012.28.6.731

수도권 거주 성인여성의 제례음식과 상차림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관한 조사

박정은 · 심기현†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식생활문화전공

A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Preparation of the Ritual Food and Table Setting by Adult Females in Capital Region

Jeong Eun Park and Ki Hyeon Sim†

Department of Traditional Dietary Life Food,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made to the adult females over 20's in the family that prepared the ritual food personally or in the family that conducts ritual or did not do the ritual for the religious reasons. And based on the prepare method of the ritual food, ritual and recognition of ritual good. 245 responses which took up 80.86% had responded they do the ritual or semi-ritual and Buddhism was most prominent religion among them. The cost for ritual food also had sta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age, marriage status and income and on the terms of the income, more the income was more they spend on the ritual food. The ritual utensil used for the ritual food als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age, marriage status, family make-up formation, religion. The form and meaning of the ritual have been changed as the society changes but is still important subject matter for most of homes. Responders were preparing the ritual with all the sincerity to their ancestors with practical and realistic decisions.

Key words : ritual food, ritual utensil, religion, recognition, ritual food preparation

I. 서 론

제례는 조상에 대한 추모 의식을 통하여 인간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사회적, 교육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히 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양 사회를 이끌어 온 문화 행위이다(Do MJ 2005). 제사는 선조에 대한 추모의 정을 후손들이 표현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의식이나 예절로서 선조에 대한 애틋한 정을 표현한 효도의 연장이다(Jang SH 2002).

우리 전통사회의 조상제례는 지배 계층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상징으로 혈연간의 유대강화 극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Seok DG 2003). 우리 민족의 전통예절은 유교를 근간으로 한 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로서 현대에는 그 형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실제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잘 전승되어 온 것은 제례뿐이다(Lee SY 2008). 제례도 4대봉사(四代奉祀)의 기제사 관습이 면대(面對)조상의 제사로 형식이 간소화 되었으며, 명절에 차례만을 지내는 가정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Seok DG 2003).

전통사회에서는 비교적 남녀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여성은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해왔으나 지금은 여성의 사회생활이 확대되었다. 그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제례의 형식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가족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

†Corresponding author : Ki Hyeon Sim, Department of Traditional Dietary Life Food,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3-12 Chungpa-dong 2-ga Yongsan-gu Seoul (140-742)
Tel: +82-2-2077-7475
Fax: +82-2-2077-7140
E-mail: santaro@sookmyung.ac.kr

대사회의 핵가족화는 과거와는 달리 소수의 자녀만을 낳아서 키우는 경향으로 바뀌어서 제사 계승에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도 증가하고 제수 준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면서 제례에 대한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과거에는 가정에서 직접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조리하여 마련하던 것을 완성된 음식을 일부 구입 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목적하는 제사의 맞추어 완성된 제례음식을 구입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Jang SH 2003). 예전에는 주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례음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나이가 든 중·노년층의 주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완성된 제수를 구입하는 가정의 수가 증가 할수록 이용 후에 따르는 불만족과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례의식 변화에 대응하고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례음식과 상차림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관해 조사하여 그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개인적 자기기입식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총 358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성의한 작성과 자료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55부를 제외한 303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Park KR(2001), Jang SH(2003)과 Kim GS(2008)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한 후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해하고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결혼, 소득, 가족형태, 종교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과 제례 의식과 제례음식과 상차림의 인식과 준비에 관해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설문내용 및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한 후에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하게 한 후에 곧바로 수거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1.5)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결혼 유무, 소득, 가족형태, 종교에 따른 각 문항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x^2-test)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에서 20대가 47.8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26.40%), 30대(25.74%)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는 미혼이 57.75%로 기혼자(41.25%)보다 약간 많이 응답하였으며,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34.32%로 가장 높고, 200-300만원 미만(33.66%), 400만원 이상(21.12%), 200만원 미만(10.89%)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2세대 가족이 73.60%로 가장 많았으며, 3세대 가족은 14.52%, 1세대 가족은 11.8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무교 및 기타가 34.98%, 기독교가 24.09%, 불교 21.12%, 천주교 19.8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사항 가운데서 표집비율이 낮은 집단은 통계분석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정규분포 가정의 오류와 의미해석 과정 발생할 수 있는 일반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집단 간 리코드(recode)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N (%)
Age	20's	145(47.85)
	30's	78(25.74)
	≥40's	80(26.40)
Marital status	Single	178(58.75)
	Married	125(41.25)
Income level (10,000 won)	〈200	33(10.89)
	200-300	102(33.66)
	300-400	104(34.32)
	≥400	64(21.12)
Family size	1st family	36(11.88)
	2nd family	223(73.60)
	3rd family	44(14.52)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73(24.09)
	Roman Catholics	60(19.80)
	Buddhism	64(21.12)
	Agnostics or Others	106(34.98)
Total		303(100.00)

2. 제례 이행 여부

제례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교에 따라 제례 이행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제례를 지내는 사람은 불교(98.44%)에서 가장 많았고, 기독교(38.36%)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례를 지내는 사람은 80.86%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Actual ritual performance N(%)

Variable		Yes	No	Total	x^2 (p)
Age	20's	118(81.38)	27(18.62)	145(100.0)	.917 (.632)
	30's	65(83.33)	13(16.67)	78(100.0)	
	≥40's	62(77.50)	18(22.50)	80(100.0)	
Marital status	Single	144(80.90)	34(19.10)	178(100.0)	.000 (.983)
	Married	101(80.80)	24(19.20)	125(100.0)	
Income level (10,000 won)	〈200	29(87.88)	4(12.12)	33(100.0)	5.479 (.140)
	200-300	87(85.29)	15(14.71)	102(100.0)	
	300-400	77(74.04)	27(25.96)	104(100.0)	
	≥400	52(81.25)	12(18.75)	64(100.0)	
Family size	1st family	27(75.00)	9(25.00)	36(100.0)	3.825 (.148)
	2nd family	178(79.82)	45(20.18)	223(100.0)	
	3rd family	40(90.91)	4(9.09)	44(100.0)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28(38.36)	45(61.64)	73(100.0)	114.119 (.000***)
	Roman Catholics	58(96.67)	2(3.33)	60(100.0)	
	Buddhism	63(98.44)	1(1.56)	64(100.0)	
	Agnostics or Others	96(90.57)	10(9.43)	106(100.0)	
Total		245(80.86)	58(19.14)	303(100.0)	

***p〈.001

서울 시내 대학생의 통과의례와 음식에 대한 Kim MJ(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일 년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 524명 중에 226명(43.1%)이었고, 1번에서 4번 지내는 응답자는 242명(46.2%)인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지내는 않는 사람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Kim ES와 Ham SS(2001)은 모든 연령에서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시대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제례 이행 여부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은 종합하여 보건데,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오랜 유교의 전통으로 인해 제사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종교나 가정 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제례의 이행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보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제례는 기제, 시제, 차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대 도시사회로 오면서 시제가 사라지고 정초나 추석에 집에서 차례를 거행하는 것 외에 차례 일에 묘에 가서 제물을 진설하여 올리는 형태의 성묘제로 변형되었다. 또한 기재도 4대봉사에 단대봉사로 간소화되었으며, 도시생활의 편리성에 의해 제사 시간도 초저녁으로 바뀌고 축문이 한글로 곡이 읍으로 바뀌는 등의 일련의 제례 절차들이 바뀌어가고 있다(Rhee KJ 1999). 이렇게 제례의 형태가 변형된 것이나 제례를 지내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것은 본 연구결과와 선행논문에서 보듯이 종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제례 형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교식으로 지내고 있는 가정이 아직은 많지만 기독교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추도식으로 바꾸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가정에 있어서 조상을 잘 섬겨야 집안이 평안해 진다는 사상이 지배적이므로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례의 의미만은 아직까지는 잘 전승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제례음식 준비 비용

제례음식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제례음식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령(p〈.01), 결혼(p〈.01), 소득(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43.22%)와 30대(60.0%)는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의 비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반해 40대 이상은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38.71%)의 비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따라서는 미혼자보다 기혼자들이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24.75%)의 비용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제사음식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종교나 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대체로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SH(2003)의 연구에서 제례음식 마련에 드는 비용을 살펴본 결과 제례음식 마련에 20만원 이상을 소요하는 가정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소요하는 가정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제례음식 마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p〈0.05),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제례음식 마련에 20만원 이상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제례음식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Table 3. Expenses spent for preparation of ritual food N(%)

Variable		〈10 (10,000won)	10–20	20–30	30–40	≥40	Total	x^2 (p)
Age	20's	5(4.24)	35(29.66)	51(43.22)	18(15.25)	9(7.63)	118(100.0)	20.431 (.009**)
	30's	-	9(13.85)	39(60.00)	14(21.54)	3(4.62)	65(100.0)	
	≥40's	-	24(38.71)	24(38.71)	13(20.97)	1(1.61)	62(100.0)	
Marital status	Single	4(2.78)	40(27.78)	67(46.53)	20(13.89)	13(9.03)	144(100.0)	13.862 (.008**)
	Married	1(0.99)	28(27.72)	47(46.53)	25(24.75)	-	101(100.0)	
Income level (10,000won)	〈200	-	7(24.14)	12(41.38)	7(24.14)	3(10.34)	29(100.0)	27.930 (.006**)
	200-300	1(1.15)	27(31.03)	46(52.87)	8(9.20)	5(5.75)	87(100.0)	
	300-400	2(2.60)	27(35.06)	32(41.56)	11(14.29)	5(6.49)	79(100.0)	
	≥400	2(3.85)	7(13.46)	24(46.15)	19(36.54)	-	52(100.0)	
Family size	1st family	1(3.70)	6(22.22)	15(55.56)	4(14.81)	1(3.70)	27(100.0)	8.764 (.363)
	2nd family	4(2.25)	48(26.97)	84(47.19)	35(19.66)	7(3.93)	178(100.0)	
	3rd family	-	14(35.00)	15(37.50)	6(15.00)	5(12.50)	40(100.0)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	10(35.71)	16(57.14)	2(7.14)	-	28(100.0)	16.226 (.181)
	Roman Catholics	2(3.45)	15(25.86)	28(48.28)	8(13.79)	5(8.62)	58(100.0)	
	Buddhism	-	18(28.57)	23(36.51)	19(30.16)	3(4.76)	63(100.0)	
	Agnostics or Others	3(3.13)	25(26.04)	47(48.96)	16(16.67)	5(5.21)	96(100.0)	
Total		5(2.04)	68(27.76)	114(46.53)	45(18.37)	13(5.31)	245(100.0)	

**p〈.01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년 전 제례음식 준비 비용을 조사한 Jang SH(2003)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제례음식 마련에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품과 비주류 음료의 과거 10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60.5%를 고려할 때 오름폭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헤럴드경제 2011). 특히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 임박해 과일, 채소 값이 오르는 것은 2000년대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0년간 6월부터 9월까지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상승률은 13.4%로 이들 식품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2%의 10배나 되고 있다(조선일보 2012). 이러한 결과는 식품비에 있어서도 꼭 지출해야 하는 주식과 부식의 비용은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제례음식과 같이 꼭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례는 시제 대신에 정초나 추석에 집에서 차례를 거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기제도 4대봉사에 단대봉사로 간소화되었고, 제례형식도 종교에 따라 추도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제례음식 준비 비용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10년 전과 같은 금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Rhee KJ 1999).

4. 제례음식 준비하는 사람

제례음식을 주로 마련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제례음식을 주로 마련하는 사람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01), 20-30대는 부모님이 마련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 40대 이상은 본인이 마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01), 미혼자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마련하는 비율이 높았고, 기혼자는 본인이 마련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마련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이 마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상관없이 대부분 부모가 제례음식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Kim MJ(2007)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제례음식과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부를 대상으로 한 Kim ES와 Ham SS(2001)의 연구에서 결혼 전에는 제례 절차에 대해 친정부모에게 배우고, 결혼 후에는 시부모에게 배운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례 상차림에 대해 조사한 Sim YJ 등(1999)의 연구에서도 친정부모에게 배운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보건데, 제례음식은 집안의 가풍을 알며 오랫동안 제례음식을 준비한 부모나 조부모, 친척 어른들이 주로 음식을 준비하며,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나 시부모와 같은 웃어른들에게 제례 음식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나중에는

Table 4. Ritual food preparation people N(%)

Variable		Grand-parents	Parents	Relatives	Myself	Others	Total	χ^2 (p)
Age	20's	15(12.71)	65(55.08)	32(27.12)	2(1.69)	4(3.39)	118(100.0)	129.109 (.000***)
	30's	-	50(76.92)	8(12.31)	6(9.23)	1(1.54)	65(100.0)	
	≥40's	-	16(25.81)	5(8.06)	40(64.52)	1(1.61)	62(100.0)	
Marital status	Single	13(9.03)	86(59.72)	38(26.39)	2(1.39)	5(3.47)	144(100.0)	80.177 (.000***)
	Married	2(1.98)	45(44.55)	7(6.93)	46(45.54)	1(0.99)	101(100.0)	
Income level (10,000 won)	<200	-	16(55.17)	5(17.24)	7(24.14)	1(3.45)	29(100.0)	21.755 (.040*)
	200-300	9(10.34)	42(48.28)	16(18.39)	20(22.99)	-	87(100.0)	
	300-400	6(7.79)	41(53.25)	18(23.38)	11(14.29)	1(1.30)	79(100.0)	
	≥400	-	32(61.54)	6(11.54)	10(19.23)	4(7.69)	52(100.0)	
Family size	1st family	-	18(66.67)	3(11.11)	5(18.52)	1(3.70)	27(100.0)	14.925 (.061)
	2nd family	9(5.06)	91(51.12)	40(22.47)	34(19.10)	4(2.25)	178(100.0)	
	3rd family	6(15.00)	22(55.00)	2(5.00)	9(22.50)	1(2.50)	40(100.0)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	15(53.57)	9(32.14)	4(14.29)	-	28(100.0)	22.139 (.036*)
	Roman Catholics	-	36(62.07)	9(15.52)	12(20.69)	1(1.72)	58(100.0)	
	Buddhism	7(11.11)	25(39.68)	12(19.05)	15(23.81)	4(6.35)	63(100.0)	
	Agnostics or Others	8(8.33)	55(57.29)	15(15.63)	17(17.71)	1(1.04)	96(100.0)	
Total		15(6.12)	131(53.47)	45(18.37)	48(19.59)	6(2.45)	245(100.0)	

*p<.05, ***p<.001

이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례는 돌아가신 후에도 조상에 대해 효를 다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다른 의식보다도 그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여기에 따르는 음식 또한 까다롭고 그 가짓수도 만만치 않으며 음식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집안의 가풍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오랫동안 가풍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온 집안 웃어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통적 제례는 대가족제의 가족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대가족제도에서는 부자는 종석 관계를 이루면서 부(父)와 자(子)는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 제례는 이러한 전통사회의 가부장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지휘 아래 제례음식을 준비하여 지낼 수밖에 없다 (Rhee KJ 1999).

5. 제례음식 차릴 때 사용하는 제기

일반적 사항에 따른 제례음식 차릴 때 사용하는 제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01), 20대(66.10%)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전통적 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30대 이상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며(p<.001), 미혼자는 나무로 만든 전통적 목기(63.89%)를 많이 사용하고 기혼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30.69%)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5), 2세대 가족(60.11%)이 전통적 목기 사용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p<.01), 대체로 전통적인 목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나 불교(30.16%)에서는 놋쇠로 만든 전통적 유기를 사용하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ang SH(2003)의 연구에서 제사에 전통적인 제기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3.68점으로 대체로 전통적인 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신자가 전통적인 제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독교 신자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기혼이고 대가족이며 수입이 높을수록 제사에 전통적인 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oo SO(1992)의 연구에서도 제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 IO와 Lee KP(1998)의 연구에서도 제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제기 사용에 있어서 종교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유교나 불교에서 제례를 올릴 시에는 제기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의 예를 중시하여 제례에 있어서도 제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예기」에 따르면 군자는 비록 가난해도 제기를 팔지 아니하고, 제기가 낡으면 묻어버린다고 하여 제기의 소중함을 강조하여 오랜 역사를 자랑

Table 5. Type of ritual utensil used in ritual food preparation N(%)

Variable		Wood	Brass	Household tableware	Others	Total	x^2 (p)
Age	20's	78(66.10)	25(21.19)	11(9.32)	4(3.38)	118(100.0)	31.091 (.000***)
	30's	29(44.62)	13(20.00)	20(30.77)	3(4.62)	65(100.0)	
	≥40's	23(37.10)	11(17.74)	20(32.26)	8(12.90)	62(100.0)	
Marital status	Single	92(63.89)	26(18.06)	20(13.89)	6(4.17)	144(100.0)	26.718 (.000***)
	Married	38(37.62)	23(22.77)	31(30.69)	9(8.91)	101(100.0)	
Income level (10,000 won)	<200	15(51.72)	6(20.69)	4(13.79)	4(13.79)	29(100.0)	12.861 (.379)
	200-300	38(43.68)	25(28.74)	20(22.99)	4(4.60)	87(100.0)	
	300-400	46(59.74)	12(15.58)	15(19.48)	4(5.20)	79(100.0)	
	≥400	31(59.62)	6(11.54)	12(23.08)	3(5.77)	52(100.0)	
Family size	1st family	8(29.63)	7(25.93)	11(40.74)	1(3.70)	27(100.0)	18.320 (.019*)
	2nd family	107(60.11)	32(17.98)	30(16.85)	9(5.06)	178(100.0)	
	3rd family	15(37.50)	10(25.00)	10(25.00)	5(12.50)	40(100.0)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14(50.00)	2(7.14)	7(25.00)	5(17.86)	28(100.0)	29.092 (.004**)
	Roman Catholics	27(46.55)	9(15.52)	17(29.31)	5(8.62)	58(100.0)	
	Buddhism	32(50.79)	19(30.16)	8(12.70)	4(6.35)	63(100.0)	
	Agnostics or Others	57(59.38)	19(19.79)	19(19.79)	1(1.04)	96(100.0)	
Total		130(53.06)	49(20.00)	51(20.82)	15(6.12)	245(100.0)	

*p<.05, **p<.01, ***p<.001

하는 종가에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신분제의 붕괴와 기독교와 천주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의 등장,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내의 제기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다. 또한 제기를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제기의 가격이 고가라서 일반 가정에서는 제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비교적 소득이 높고 대가족인 가정에서 제기를 많이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우수한 전통 제례 문화를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되고 저렴한 제기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제례 형식

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종교에 따라서만 제례 형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일반적으로 제례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67.86%)나 천주교(51.72%)에서 유교식으로 제례를 지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IO과 Lee KP(1998)의 연구에서도 대부분 전통적인 유교식으로 제례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점차 기독교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간소화된 추도식 형태로 제례를 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우 조상을 기리는 방법이 전통적인 유교식으로 제례를 드리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나 미사를 드리는 것이 고인의 영을 위로해 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조상숭배는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하여 제례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종교의 갈등으로 제례를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hee KJ 1999). 이러한 종교적 갈등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제례를 지내야 한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제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 제례음식 준비 방법

제례음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1), 대부분이 집에서 직접 제례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는 제례음식 전부를 구입하는 비율도 다른 가정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종교에 따라서 제례음식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p<.01),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71.43%)와 무교(58.33%)는 집에서 직접 제례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천주교(48.28%)와 불교(47.62%)는 집에서 준비하되 일부는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가정이 높은

Table 6. Ritual formality mainly used in sacrificial rites N(%)

Variable		Confucianism	Buddhism	Christian	Catholics	Others	Total	x^2 (p)
Age	20's	62(52.54)	37(31.36)	9(7.63)	6(5.08)	4(3.39)	118(100.0)	6.571 (.584)
	30's	39(60.00)	16(24.62)	4(6.15)	6(9.23)	-	65(100.0)	
	≥40's	38(61.29)	13(20.97)	6(9.68)	4(6.45)	1(1.61)	62(100.0)	
Marital status	Single	72(50.00)	42(29.17)	14(9.72)	12(8.33)	4(2.78)	144(100.0)	7.847 (.097)
	Married	67(66.34)	24(23.76)	5(4.95)	4(3.96)	1(0.99)	101(100.0)	
Income level (10,000 won)	<200	14(48.28)	11(37.93)	2(6.90)	2(6.90)	-	29(100.0)	12.161 (.433)
	200-300	48(55.17)	25(28.74)	7(8.05)	5(5.75)	2(2.30)	87(100.0)	
	300-400	50(64.94)	19(24.68)	2(2.60)	5(6.49)	1(1.30)	79(100.0)	
	≥400	27(51.92)	11(21.15)	8(15.38)	4(7.69)	2(3.85)	52(100.0)	
Family size	1st family	15(55.56)	5(18.52)	6(22.22)	1(3.70)	-	27(100.0)	12.083 (.148)
	2nd family	103(57.87)	51(28.65)	9(5.06)	11(6.18)	4(2.25)	178(100.0)	
	3rd family	21(52.50)	10(25.00)	4(10.00)	4(10.00)	1(2.50)	40(100.0)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19(67.86)	1(3.57)	8(28.57)	-	-	28(100.0)	78.392 (.000***)
	Roman Catholics	30(51.72)	12(20.69)	3(5.17)	13(22.41)	-	58(100.0)	
	Buddhism	23(36.51)	31(49.21)	4(6.35)	3(4.76)	2(3.17)	63(100.0)	
	Agnostics or Others	67(69.79)	22(22.92)	4(4.17)	-	3(3.13)	96(100.0)	
Total		139(56.73)	66(26.94)	19(7.76)	16(6.53)	5(2.04)	245(100.0)	

***p<.001

Table 7. Ritual food preparation method N(%)

Variable		Home-made	Home-made+Market	Market	Total	x^2 (p)
Age	20's	70(59.72)	39(33.05)	9(7.63)	118(100.0)	5.582 (.233)
	30's	29(44.62)	31(47.69)	5(7.69)	65(100.0)	
	≥40's	35(56.45)	24(38.71)	3(4.84)	62(100.0)	
Marital status	Single	83(57.64)	50(34.72)	11(7.64)	144(100.0)	1.690 (.430)
	Married	52(51.49)	43(42.57)	6(5.94)	101(100.0)	
Income level (10,000 won)	<200	15(51.72)	13(44.83)	1(3.45)	29(100.0)	19.669 (.003**)
	200-300	46(52.87)	38(43.68)	3(3.45)	87(100.0)	
	300-400	47(59.49)	29(36.71)	3(3.80)	79(100.0)	
	≥400	28(53.85)	15(28.85)	9(17.31)	52(100.0)	
Family size	1st family	14(51.85)	10(37.04)	3(11.11)	27(100.0)	1.987 (.738)
	2nd family	97(54.50)	69(38.76)	12(6.74)	178(100.0)	
	3rd family	24(60.00)	14(35.00)	2(5.00)	40(100.0)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20(71.43)	7(25.00)	1(3.57)	28(100.0)	21.355 (.002**)
	Roman Catholics	26(44.83)	28(48.28)	4(6.90)	58(100.0)	
	Buddhism	24(38.09)	30(47.62)	9(14.29)	63(100.0)	
	Agnostics or Others	56(58.33)	35(36.46)	5(5.21)	96(100.0)	
Total		126(51.43)	100(40.82)	17(6.94)	245(100.0)	

**p<.01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교는 시장에서 전부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29%로 다른 종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불교의 경우 가정에서 직접 제례를 지내기보다는 스님께 위탁하여 천도제 형식의 조상공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Jang SH(2003)은 제례음식을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4.033점으로 대부분이 제례음식을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제례음식을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많았다($p<0.05$).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 신자가 제례음식을 집에서 가장 많이 만들었고, 기독교와 무교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제례음식을 집에서 만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또한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제례음식을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제수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Son YM 등(1992)의 연구에 따르면 전, 적, 나물, 식혜는 집에서 준비하고, 포, 한과, 제주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Park KR(2001)의 연구에서는 전, 나물, 김치, 송편, 식혜는 가정에서 준비하고, 포, 한과, 제주는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아직까지는 제례음식을 집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음식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제례음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제례음식을 시장이나 대행업체에 의뢰해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례의식이 다소 약해지기는 하였으나 조상을 숭배하는 한국 사회의 기본 원칙은 제례를 통해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제례음식 준비에 있어서도 자손으로써 조상을 공경하고 기리며 숭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가정도 많다. 제례는 조상 숭배 뿐만 아니라 친족 간 유대를 다지고 혈연을 강화하려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간소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제례음식을 가정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전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사회구조가 산업화, 단순화, 도시화, 핵가족화 됨에 따라 그 의미와 존재가 쇠퇴하고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과거에는 가정에서 직접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조리하여 마련하던 것을 완성된 음식을 일부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완성된 제사음식을 구입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제례음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나이가 든 중·노년층의 주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이 증가할수록 이용 후에 따르는 불만족으로 숭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므로 제례음식 준비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8. 전통 제례 상차림 유지

전통적인 제례 상차림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가족형태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p<.05$), 1세대 가족(66.67%)이 전통적인 제례 상차림을 따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Sim YJ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의례음식과 차례 상차림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78%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Cho YS 등(1988)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57.1%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하여 시대가 지날수록 전통 제례 상차림이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제례 상차림을 고수하고 있으나 종교나 가치관에 따라서는 간편화, 합리화, 간소화를 추구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Table 8. Retain traditional ritual table

N(%)

Variable		Yes	No	Total	x^2 (p)
Age	20's	79(54.48)	66(45.52)	145(100.0)	1.677 (.432)
	30's	46(58.97)	32(41.03)	78(100.0)	
	≥40's	39(48.75)	41(51.25)	80(100.0)	
Marital status	Single	104(58.43)	74(41.57)	178(100.0)	3.215 (.073)
	Married	60(48.00)	65(52.00)	125(100.0)	
Income level (10,000 won)	<200	19(57.58)	14(42.42)	33(100.0)	1.416 (.702)
	200-300	51(50.00)	51(50.00)	102(100.0)	
	300-400	60(57.69)	44(42.31)	104(100.0)	
	≥400	34(53.13)	30(46.88)	64(100.0)	
Family size	1st family	12(33.33)	24(66.67)	36(100.0)	8.132 (.017*)
	2nd family	130(58.30)	93(41.70)	223(100.0)	
	3rd family	22(50.00)	22(50.00)	44(100.0)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33(45.21)	40(54.79)	73(100.0)	3.146 (.370)
	Roman Catholics	35(58.33)	25(41.67)	60(100.0)	
	Buddhism	36(56.25)	28(43.75)	64(100.0)	
	Agnostics or Others	60(56.60)	46(43.40)	106(100.0)	
Total		164(54.13)	139(45.87)	303(100.0)	

*$p<.05$

제례형식과 의미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상 제례 양식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제례의 의미는 유지하되 간편하고 보편화된 제례 상차림을 새롭게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hee KJ 1999). 정부에서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며 허례화 된 의례를 현대인 생활에 맞추어 1969년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종교적 의식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가정의례준칙의 현실적 정례화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현대인에 맞는 제례 형식를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접 제례음식을 준비하거나 제례를 지내는 가정,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제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에 속한 수도권 거주 20대 이상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례음식과 상차림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관해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은 20대가 47.8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이 기혼자보다 약간 많이 응답하였으며,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200-3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2세대가족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 및 기타가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다. 제례 이행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80.86%가 제례를 지낸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 불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제례음식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령, 결혼 유무,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의 경우 비교적 소득이 많을수록 제례음식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례음식 차릴 때 사용하는 제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연령, 결혼 유무, 가족형태,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례형식은 종교에 따라서만 제례형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의외로 기독교에서 유교식(67.86%)으로 제례를 지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례음식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소득과 종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대 가족일수록 전통적인 제례 상차림을 따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5$).

이상의 결과와 같이 제례를 이행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제례 준비 방법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종교나 가족형태가 변화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나 기독교와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제례 형식도 점차 간소화시키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으므로 제례 형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 가정에 있어서 조상을 잘 섬겨야 집안이 평안해 진다는 사상이 지배적이므로 종교나 가풍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례의 의미만은 그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제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제례음식을 가정에서 따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시장이나 대행업체에 의뢰해 제례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상을 숭배하는 한국 사회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례음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20-30대 젊은 사람들은 제례음식을 직접 준비하기 보다는 부모나 조부모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사람들이 제례절차나 음식에 대해 쉽게 습득하여 제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제례는 조상 숭배 뿐만 아니라 친족 간 유대를 다지고 혈연을 강화하려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제례 형식이 아무리 현대화·간소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우수한 제례 문화는 계속적으로 전통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차례상 차리기 겁나네"…추석 물가 급등은 연례행사?. Available from: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2/08/29/2012082902740.html. Accessed data Chosunilbo. Accessed August 29, 2012

헤럴드경제. '육류값 두배 급등… '먹고살기' 빠듯하다'. Available from: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711000313&md=20120422123938_AN. Accessed data the Korea Herald. Accessed July 11, 2011

Cho YS, Hong SO, Han JS. 1988. The study of the housewives consciousness on the Korean traditional food in Taegu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3(3): 281-292

Do MJ. 2005. The structure and significance of confucian ancestor-memorial ceremonies. Study East Philos 42:226-232

Jang SH. 2002.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n the ritual foods and ceremony : in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Masterate thesis. Sejong University. pp 1-105

Kim ES, Ham SS. 2001. The survey on the practice of ancestral service food in Chuncheon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1(4):235-246

Kim GS. 2008. The influence of familism, ancestor worship ceremonial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on the ceremonial satisfaction : focused on death anniversary ceremonies. Doctoral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p 1-121

Kim IO, Lee KP. 1998. The study on Korean traditional ancestral rites. J Korean Home Economic Assoc 36(1):51-63

Kim MJ. 2007. A study on Seoul university student' s recognition on passage rites and foods-funeral rites and sacrificial rituals. Korean J Food Cookery Sci 23(2):35-244

Koo SO. 1992. A study on the sacrificial behaviors of the married women teachers. Masterate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p 4-43

Lee SY. 2008. The opinion of traditional ethic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 about the students` opinions of the memorial services. Korean Element Mor Edu Soc 28: 216-240

Park KR.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ncestor memorial-service culture in Korea. Doctoral thesis. Chung Ang University. pp 1-132

Rhee KJ. 1999. A study on the change of ceremonies of marriage and ancestor worship since liberation in Korea. Korean J Family Welfare 4:153-187

Seok DG. 2003. The changes of religious thoughts in sacrificial rituals. Asian Comp Folk. 24:151-172

Sim YJ, Kim JS, Chun HJ. 1999. The knowledge of Korean ceremony foods and table setting of Korean American housewives in the New York / New Jersey area. Korean J Soc Food Sci 15(2):52-63

Son Ym. Jung RW, Lee HG. 1992. A study on the urban housewives' view of the transitional rites and on the actual use of ritual food. J Korean Living Sci Res 10:41-66